

도심 수행도량을 찾아서 ⑦ - 고양 문사수법회

도량이 선원도 절도 아니다. '법회(法會)'다. 그 흔한 소원성취 불공기도, 명자를 위한 49재도 없다. 오직 법문을 듣고 생각하고 수행만 한다. 그래서 불인 이름이 '문사수(聞思修)'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聞), 나 자신을 비추어보아(思), 내 삶을 수정해 정도에 이른다는 것(修), 문사수법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때문에 문사수법회는 그 이름처럼 '법회'가 중심이다. 매주 대중·경전·수련·정진법회 등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법회로 시작해서 법회로 끝나는 셈이다. 그럼 문사수가 법회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듣고 생각하고 닦기'

문사수법회 김태영 상임법사는 법회를 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법회는 스스로의 삶이 잘못된 생각의 그림자에 가려져 불행과 모순에 빠져 있음을 자각하고, 마침내 자신의 참생명 가치를 깨우쳐 밝고 맑은 나날을 만들어 가자는 데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금강경으로 배우는 불교' 강좌를 매주 화요일 고양시 문사수법회 법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김 법사.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 가치를 불행과 고통을 통해, 있는 그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법회를 마련한다고 말했다.

잠시 후, 법회가 시작됐다. 20여 대중들이 한글로 된 <금강경>을 일제히 합송했다. 오늘 공부할 부분은 <금강경> 13분(分) '여법수지분(如法受持分)'. 독송이 끝나자 곧장 김 법사가 대중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깨달음은 '깨는' 걸까요, '깨치는' 걸까요?"

"..."

"스스로 깨는 겁니다. 상대적인 틀 속의 나를 깨는 거지요. 항상 경전과 법문을 듣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변화시켜야 해요. 그것이 문사수 수행의 핵심이죠."

김 법사가 문사수 수행 원리를 설명했다. "깨친 부처'나 '못 깨친 중생'이나 본래 같다는 것이 문사수 수행법의 기본이라는 말이다. 즉 부처든 중생이든 이미 깨쳐있는 것이다. '부처가 된다'는 것



문사수법회 회원들이 경기도 고양법당에서 한글 <금강경>을 합송하고 있다.

이 아니라, 본래 '부처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의미다. '내 참생명이 곧 부처의 참생명'이란 수행모토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염불은 부처님 법문, 염불로써 깨친다

그럼, 무엇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 김 법사는 '염불'로써 깨달는다고 말했다. "염불은 스스로 자신의 참생명을 드러내지요. 또 입 달린 중생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서 자기 일상생활을 비추어보고 참된 방향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수정해간다는 '문사수 삼혜(三慧)'가 바로 염불 수행의 구체적인 행법이 되는 거죠."

"내가 바로 부처임"을 알게 하는 힘이 된다는 염불. 문사수법회에서 6년 넘게

말하고 듣고 수행하며 '내가 부처' 확인

수행해온 최향순(51·미등)씨는 문사수 염불은 '회청염불(回聽念佛)'이라고 말했다.

"내가 말하는 독경과 염불 소리를 내가 들죠. '내가 부처'라는 가르침을 말하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회청염불이죠. 이것이 문사수 법회의 수행원리이자 핵심이예요.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염불에 몰입하게 돼 변하는 내 모습을 스스로 확인하게 됐죠. 내가 부처라고 확인하게 되니 세상을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5년째 문사수 염불수행을 해오는 박기범(35·법조씨도 마찬가지로)은

"예전에는 '세상을 무조금 잘 살겠다'는 정신적 무장만으로 열심히 살려고 했

죠. 그런데 염불을 하면서, 이런 딱 막힌 제 생각이 어느 순간 무장해제가 되더군요. 대신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무한한 감사의 마음이 들었어요."

#사이버 '공개 정진' 프로그램 도입

지난 1988년 창립한 문사수법회의 특징은 6개월 과정의 불교공부 프로그램에 있다. '입문→교리학습→불교강좌 수강→경전법회→대중법회'의 과정을 밟는다. 이를 통해 회원들이 불교이해의 안목을 띄우는 한편, 본격적인 수행의 기틀을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중, 매일 한 차례 진행되는 문사수법회 회주 한담 스님의 대중법문은 회원들의 전반적인 수행태도를 점검해주고 있다. 또 김태영 상임법사가 맡고 있는 신개념법담은 회원들에게 자기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수시로 돕고 있다.

특히 문사수법회는 최근 새 단장해 문을 연 문사수법회 홈페이지(www.munsasoo.org)에서 '사이버 공개 정진서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본인의 정진목표를 예경, 법공양, 발원, 염불, 찬탄(회향) 등으로 나눠 공개·발표하도록 해, 본인은 물론 회원들의 수행의지를 독려하고 있다. (031)966-3581

글·사진=김철우 기자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23> 당나라 시대의 러시아를 뚫고 도박꾼들

복수를 담보로 게임을 하는 러시아를 뚫은 당사자도 당사자이러니와 옆에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손에 더 땀을 쥐게 한다. 탄알이 한 발 든 6연발 권총의 실린더를 돌린 뒤 순서대로 자신의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는 모습을 결코 승부를 가리는 도박의 일종이다. 19세기말 러시아 귀족들이 즐겨 했다고 한다. 미친 짓 같은데도, 그래도 뚫지는 몰라도, 뚫기 있어 보인다.

그런데 놀라지 마시라. 선종사에는 8세기 무렵 이미 러시아를 뚫고 가는 사건이 있었다. '모 아니면 도'는 '부처 아니면 중생'이라는 선종의 깨달음관(觀)과 연결되면서 극단적인 승부사적 기질의 소유자들 만들어 내는 토양이 됐다.

구봉도전(?~921)

선사는 석상경계(807~888) 선사에게 인가를 받게 되었다. 스승에 대한 신뢰는 시봉으로 이어졌다. 열심히 사자소임을 보는데 얼마 되지 않아 스승이 갑자기 열

린대로 꼭 같이 시봉을 하겠습다." 깨친 안목으로 제대로 된 답변을 해준다면 스승으로 모시겠다는 말이다. 수좌는 자신있게 당당한 표정을 지으며 마음대로 물으라고 하였다.

그래서 구봉은 "스승께서 '쉬고 쉬어라(休去歇去)' 한 생각이 만년이다. 식은 재와 마른 나무같이 하라' 하였는데, 이것은 무슨 일을 밝힌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다. 즉각 대답했다. "그건 일색변사(一色邊事)를 밝힌 것이지."

그러나 그 답변은 구봉의 안목으로 볼 때에는 깨친 소리가 아니었다.

그러자 그 수좌가 구봉이 쥐고 있던 항을 달라고 하였다.



"대가가 나를 인정하지 않단 말이지. 좋아! 그럼 땀을 보여주세요. 내가 열반하신 방장스님과 마음이 계속되지 않았다면 이 항이 다 탄 이후에도 내가 살아있을 거야."

공부 경지 보여주려 수좌스님 앓은 자리서 입적 구봉 선사, 깨달음 증표로 끝까지 좌탈 인정 안해

반하고 말았다. 이 사건은 구봉에게는 개인적으로 의지해야 할 한 스승이 없어진 것에 불과하지만, 총림은 공석의 방장스님을 다시 모셔야 하는 큰 입임을 의미한다. 짧은 구봉의 불력은 대중들이 알 길이 없다. 관례대로 당중의 제일자인 수좌를 천거하여 방장으로 모시고자 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구봉은 이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 좌차대로 법랍대로 서열대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짧은 공부인의 기개로 볼 때 정말 웃기는 이야기다. 태어나는 거야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에 무슨 순서가 있으며, 출가야 순서가 있지만 깨달음이 순서대로 오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중처소는 대놓고 대들 수도 없는 분위기다. 그래서 그 수좌를 뒷방으로 불렀다. 단둘이 있을 때 단둘이 직접적으로 불렀다. 이른 바 요즘 애들 말대로 '맞짱'을 뜬 것이다.

"나의 몸속에 열반하신 스승의 뜻에 맞게 분명히 대답하신다면 제가 스승에게 하

그렇게 말하고는 항을 피운지 얼마 되지 않아 앓은 자리에서 그대로 입적해 버렸다. 그런데 이 놀라운 과정을 지켜본 구봉의 태도가 더 입을 벌여지게 한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열반해버린 수좌의 등을 아무런 지장 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앉아서나 서서나 죽는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실사 앉아서 죽었다고 할지라도 스승의 뜻은 꿈에도 보지 못한 것이다."

어쨌든 둘 다 대단한 경지이다. 방장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좌탈(坐脫) 자기 공부 경지를 보여주려는 제일수좌나 또 그것을 보고도 인정에 끄달리지 않고 좌탈 자체가 깨달음의 증표가 될 수 없다는 자기인식을 다시금 확인시킨 구봉 선사 모두 난향난제라 하겠다. 이 정도는 꽤야 진짜 도박꾼이다. 깨달음은 무가보(無價寶)이 어찌 몇 푼 판돈에 비하겠는가. 이런 기상이 선종을 오늘까지 면면히 이어지게 한 저력일 것이다.

법은 인정으로 나이로 친소(親疎)로 주거나 받거나 할 수는 없다. 그건 모두가 당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밤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태영
전환주시는 본래는 언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회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명동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396-2736
http://www.avatarcntr.com.kr
E-mail: heegyun@avatar21.com

개 천 구조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치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삼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이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동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하시려 하시는 분
-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절망되는 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 집안이 잘 안돌리는 분
-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闕道救人)"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고타를 수행(佛,行)함으로써 혁명적인 힘(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조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난치병 치유)
- 자기 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예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외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예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천안통, 천이통, 속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원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으로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흥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입니다!